

#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인기'

### 70개사 모집에 176개 제조기업 신청... 경쟁률 2.5대 1 도, 2주간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 통해 5월 중 선정

열악한 제조업 현장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이하, 전북형 프로젝트)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전북형 프로젝트를 모집한 결과, 70개사 모집에 총 176개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형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전국 최초로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가를 별도로 채

용해 기업당 6~8주 가량 상주하며, 제조기업의 정보통신기술 도입과 함께 현장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여전히 대부분의 제조 현장에서 생산량·품질·재고 등의 생산 정보가 수기로 관리되는 현실을 파악하고, 70개 기업 목표 중 40개 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미적용 기업(JSI 유형)에 할당했다.

JSI 유형의 지원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매출액 50억원, 고용인원 20명 미만인 기업으로, 40개사 모집에 53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해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단계인 JSI 유형은 부분별 표준화 및 실적정보 관리를 목표로 운영시스템 중 일부 모듈 또는 현장 개선(간편 자동화 활용 등)을 지원한다.

JSI 유형은 공정별 실적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생산 실적이 바코드와 기초 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해당 유형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인 유형으로, 20개사 모집에 95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해 평균 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비 정보를 최대한 자동으로 획득해 실시간 현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JSI 유형은 10개사 모집에 28개 기업이 지원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사업 공고에서 시군별·유형별로 구분해 접수한 JSI 유형에서는 완주군과 무주군, 장수군의 사업계획 접수가 일부 미달돼 오는 19일까지 도입 희망 기업을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신청한 176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공정개선의 필요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이후 대면평가를 통해 5월 중 7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전국 최초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형 전담 멘토들이 중소 제조현장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추진

### 10월 31일까지 캠프 통해 사업 신청 접수

전북자치도가 도내 조선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조선업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공제사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조선업 기업체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전북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도내 조선업 기업체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년간 월 12만5,000원 총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450만원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공제사업이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총 600만원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장이 신청서와 필요서류 등을 첨부해 (사)캠캠프종합기술원 일자리사업기획팀 이메일 주소(job@camtic.or.kr)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전북 주력산업인 조선업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조선산업 고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조선업 인력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입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도, 이달 30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입업·산립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입업직불금)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입업직불금은 올해 시행 3년차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입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입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입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입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 직전 연도 연간 종사 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입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에 연락해 확인 가능하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복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입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8일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 최병관 행정부지사, 원광대병원 의료진 격려

### "응급·중환자 진료에 차질없도록 최선 다해달라"

### 의료공백 속 환자들 곁 지키는 의료진들 노고 치하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의료공백에 따른 도민의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8일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을 운영해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전북권역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3차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원광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의사공백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진 이탈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듣고 "응급·중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시설인 권역심뇌혈관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계류장 등을 두루 방문하면서 의료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회의실에서 소방본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과 응급의료협의체를 개최해 의사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각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농업기반시설 확충

###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3906억 원 투입

전북자치도가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파손된 저수지, 용·배수로 등을 개보수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날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규모 총 57개소, 국가예산 3,906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국가예산 2,462억원 보다 1,444억원 증액된 규모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배수개선사업 23개지구 2,021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2개지구 1,455억원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1개지구 390억원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1개지구 40억원이다.

농식품부가 올해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2025년도에 신규착수 지구를 선정하면, 도·시·군, 농어촌공사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2026년 사업을 착수해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배수개선사업 대상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 일원으로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문 등 배제시설이 확충되면 신속한 배수 처리로 2,779ha의 농경지가 수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안전 점검결과 D등급 이하의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노후 파손된 용·배수로를 재정비한다. 또한 흙 수로를 구조물화 하고 저수지를 준설하는 내용으로 재해에 대비하고 영농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용수 이용 체계재편사업은 저수지의 여유 수량이나 시설물 보강을 통해 추가 확보된 용수를 가문 상습지역에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물 부족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동계면 일원의 208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고창군 공음면 예전저수지에 인공습지, 침강지, 정화시설 등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발작물, 시설물 등에 다양한 작물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